

이용안내

개관시간 / 9:00 ~ 16:30

유적부분은 24시간 오픈

휴관일 /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다음날>

공휴일 다음날, 연말연시

관람료 / <2층전시실은 유료>

구분	개인	단체	회수	공통	공통단체
일반	300	220	1,380	570	460
고등학생 대학생	200	150	920	360	280
초등학생 중학생	50	40	230	120	90

특별전시개최시에는 특별요금으로 됩니다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기획전시 관람권은 공통권입니다.
단체는 30명이상입니다.
회수권은 5회로 됩니다.
공통권은 인접한 세리자와 케이스케 미술관도 관람가능합니다.
세리자와 케이스케 미술관개관시만 판매.
시즈오카시내에 사시는 70세 이상의 분, 초등학교, 중학생 <통학포함>, 학원아동은 무료.
장애인수첩등의 제시에 의해, 본인과 동반자 1명은 무료.



<<버스>> JR시즈오카역 남쪽출구부터 약 10분
시즈테쯔야스토라인 <도로유적>가는 버스종점에서 내림
<<자동차>> 토우메이시즈오카C부터 약 10분,
유적 남쪽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음

시즈오카시 도로박물관

문의 0422-8033 054-285-0476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도로5쵸메 10번 5호
<http://www.shizuoka-toromuseum.jp/>

일본고고학의 금자탑

특별역사터 도로유적

도로유적은 약2000년전 야요이시대후기의 마을터입니다.제2차세계대전중이던 1943년에 군수공장을 건설하던 도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선인들의 노력에 의해 단기간이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학회로부터 높은 주목을 받고있으며,또 야요이시대의 논터 유적이 확인된것은 일본에서 최초로 되고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본격적이 발굴조사가 추진되었습니다,많은 토기,목제품등의출토품과 함께 주거지와 창고등의 거주지역과 수전지역이 함께 확인됨으로서 <야요이시대는 벼농사>라는 이미지가 정착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그리고 이조사를 계기로 일본고고학협회가 발족되었으며 ,전후 일본고고학의 출발점으로서 기념이되는 유적입니다.

1952년 에 나라의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그후 사적공원으로서 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재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대형굴립주건물 <채전>이며 마을을 구획하는 도랑,수전의 작은 구획등 많은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현재는 당시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역사공원으로 정비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가 체험 박물관

시즈오카시립 도로 박물관

나라의 소중한 재산인 도로유적,그가치를 먼 미래에까지 이어가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2016년 8월에 나라중요문화재로 지정된 775점의 출토품등의 200점을 포함한 400점의 자료를 전시하고있으며 유적의 개요와 조사역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층의 야요이 체험 전시실에서는 재현된 도구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을 유사체험할수있습니다.1층과 옥상은 전부가 무료 공간으로서 ,자유롭고 열린 박물관입니다.



도로유적, 도로 박물관 역사

- 1943 1943년 7월 11일 <도로유적발견>
신문 보도
제1차발굴조사 실시
- 1947 1947년-1950년 제2차-5차 발굴조사
1948년 일본고고학협회 설립
- 1951 1951년 3월
제1호 복원거주 건설
- 1952 1952년 11월 22일 나라의
특별사적으로 지정<11,600 m²>
4월 제1호 고상창고 건설
- 1955 1955년 3월 20일
시즈오카고고관 개관
<도로박물관 전신 >
- 1965 1965년 토우메이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제6차 발굴조사
유적보호활동 활성화
- 1971 1971년
시즈오카고고관 폐관
- 1972 1972년 4월1일
시즈오카시립도로박물관 개관 <옛박물관>
- 1977 1977년
논터복원
- 1978 1978년 12월 21일
특별사적추가지정 (48,300m²)
- 1994 1994년
시즈오카도로박물관 1층 리노베이션,참가 체험형 박물관으로
- 1999 1999년-2003년
도로유적 재발굴조사
- 2003 2004년2월27일
도로유적출토품699점이
시즈오카현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음
- 2006 2006년 -2011년
도로유적 재정비 공사
- 2007 2007년
시즈오카시립도로박물관 폐관
- 2010 2010년 10월3일
시즈오카시립도로박물관 리뉴얼 오픈
- 2016 2016년8월17일
도로유적출토품775점을 중요문화재로 지정



발견당시 도로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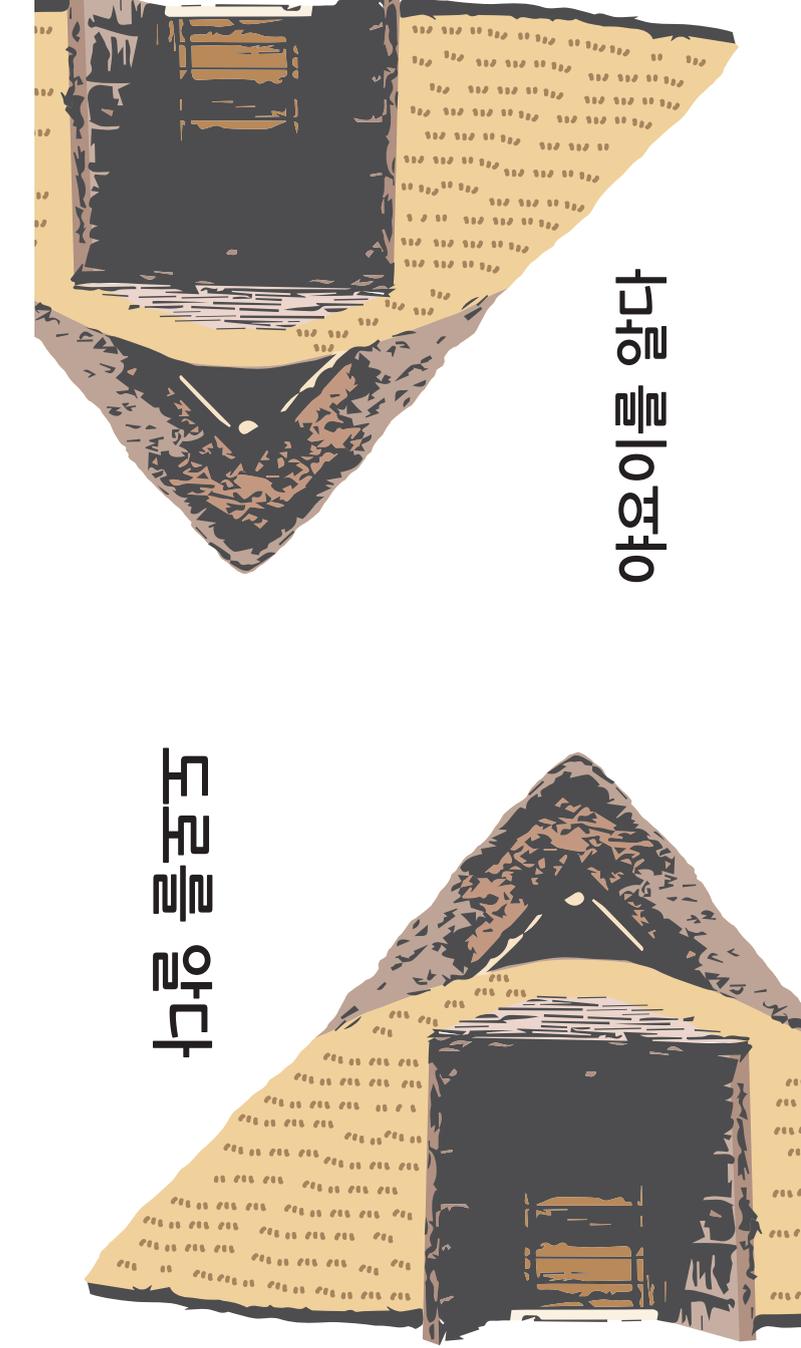
전후발굴조사 모습



제6차발굴조사 모습



재발굴조사지정 공중촬영



야요이시대

도로를 잇는다

시즈오카시립도로박물관 특별사적 도로유적

야요이 생활을 알고, 배우다 도로박물관

야요이사람의 생활을 알고 체험하는 박물관

박물관 1층은 입장무료구역, 2층은 유료전시구역으로
되어있으며, 도로유적에 대해깊게 알고배울수 있다.
1층옥상은 무료공간, 2층은 관람권제시가 필요합니다.



야요이체험전시실



박물관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체험학습을
주축으로 한 전시실.주거,고식창고,제전,수전이
전시실내에 재현되어있으므로,야요이시대로
타입슬립한느낌입니다.



체험지도원과 자원봉사직원이 차근차근
체험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기타

1층에는 그외,고고학관계도서를 갖춘<
도서코너>며관광정보등을 소개하는<
정보,영상코너>그리고강연회등에
사용할수있는< 도로교류홀>이 있습니다.

박물관 상점



오리지널 상품, 도서, 기획전시그림책등을
판매하는 상점이며, 체험용상품도
갖춰져있습니다.



옥상에서는 후지산을
일망할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도로마을의 생활을 소개하는 출토품을 진열한
전시실입니다.또 일본고고학역사에 빛나는
도로유적발굴에 중사한분들에 대한 인터뷰며
발굴당시의 신문기사등을 통해
체험할수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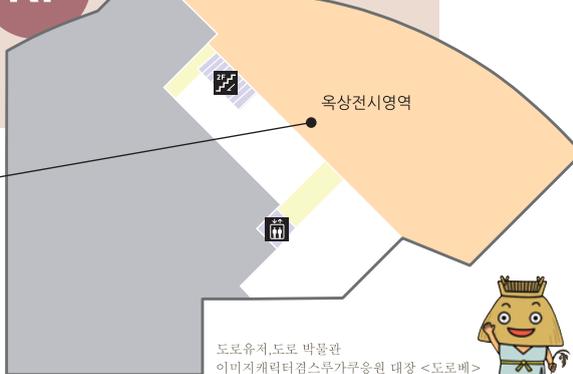
디오라마, 퀴즈, 영상등 매체와 결합된
직관적이고 알기쉬운 도로유적전시를 즐길수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시실



여러가지주제의 특별전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전시실.관람권은 상설전시용과
같으므로 합쳐서 관람할수 있습니다.

RF



도로유적, 도로 박물관
이미지캐릭터점스무가무용원 대장 <도로메>



야요이풍경을 보고, 걷는다 도로유적

* 가인 사사키 노브쓰나가 도로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하며 지은 노래. 제목은 <<도로환상>>입니다.
<<젊은 남녀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밭에드는
상태에 구애한다. 그환호소리에 섞여서 파도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 라는 뜻입니다.

거주



주위에 독을 쌓고, 수혈거주랑 같은
구조를 만들어낸 거주지는
도로유적의 독특한 건축
방법입니다. 거주지의 주변에는
배수용 도랑이 있습니다.

고상창고



벼를 장기간 보존하고 습기를
막기위해 마루를 공중으로
깔아올리고, 작은동물들로부터의
피해를 막기위한 귀막이가
특징적입니다. 기둥수에 따라 규모가
다릅니다.

메모리얼 광장



도로유적에서는 전국적으로 앞서
유적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1951년
도쿄대학교 세키노마사루교수가
복원건물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거주지가 복원되는등
정비추진에서 전국의 모범으로
되었습니다.

야요이 벼농사, 논경작마을이 펼쳐지는 역사공원

야요이 후기<약2000년전전> 이 지역에는 서쪽으로 흐르는
아베강지류에 의해 형성된 고지대에 마을이 생겼습니다.그중의
하나가 도로유적입니다.북쪽은 거주지,남쪽은 논농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마을은 4시기를 거쳐,그사이 두번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현재 복원된모습은 첫 홍수피해후,부흥된
전성기시기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とろをとめ
うた
聲にまじる
阿倍をとこ
らが
遠つ
汐さゝ
み
歌垣の
佐佐木信綱*

거주등 건축터



거주지가 사라지고 주변의 독과
도랑만 남은 상황.

제전



양쪽의 무나모치바히라가 특징인
대형굴림주 건물로서 서쪽은 광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광장남쪽 수로에
접한 우묵한 형태의 유구에서
복갈등 짐을지는데 사용된 도구가
출토되었습니다.특별한
공간이었음을 알수있습니다.

복원수전



넓은 논두렁으로 크게 구획된 논을
작은 논두렁으로 다시
구획하고있습니다.두번째 홍수뒤에
,큰논두렁이며 수로는 말뚝이나
널말뚝으로 보강되었습니다.